

양계경 영상의

부 기 회 계 (Ⅳ)

조 용 회

<영남대 축산대학 강사>

4. 거 래

거래(去來)란 무엇인가?

양계경영활동은 투하된 자본이 생산과정 판매과정을 통하여 다시 화폐에 의해서 자본으로 회수되므로써, 재화(財貨)의 이동과 변화가 빈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화의 이동과 변화가 발생함은 자산·부채 및 자본의 가치적 증감변화(價値의增減變化)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감변화를 가지고 오는 모든 사실을 부기에서는 거래(Transaction)라고 한다.

보통 상식적으로 쓰이는 거래라는 것은, 물건의 매매나 대차(貸借)를 뜻한다. 그러나 부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라는 뜻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즉 현실적인 대차 뿐만 아니라, 재화의 수수(授受)가 행해 지지 않는 경우라도 기업의 재정상태에 변화를 가져 오게하는 사실은 모두가 거래인 것이다. 예를들어,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되어 대손(貸損)으로 처리한 다든가, 계사나 창고가 수재나 화재로 파괴 된다는가, 계란이나 사료를 도난 당한다든가 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모두가 자산과 자본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실이므로 부기에서는 엄연한 거래이며, 장부상 처리가 요망되는 것이다. 그 뿐만아니라, 부기상 거래는 육성계의 성장으로 인한 가치증식과, 여러가지 고정자산의 감가 상각예금에 의한 이자, 시세변동에 의한 자산가치의 변화, 자금의 원입과 인출에 의한 증자(增資)와

감자(減資)까지도 전부 거래이다.

이에 대해서 병아리를 미리 주문한다든가, 토지나 가옥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등은 일반적 의미로는 거래가 되나, 대금의 지불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업의 재정상태는 하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부기상 거래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장부에 아무것도 처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부기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재정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실이므로,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재산 계산과 손익계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2)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업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 자본·부채·손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가에 대하여 ① 교환거래 ② 손익거래 ③ 혼합거래로 분류되는 것이다.

① 교환 거래(交換去來)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란 재산상호간(여기서 재산이란 적극적 재산인 자산과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포함한 의미)이나 자본상호간의 형태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로서 이익이나 손실에는 아무런 변동을 시키지 않는 거래이다. 예를 들면, 토지를 현금으로 매입했을 경우, 현금이라는 형태의 자산이 감소하고 토지라는 형태의 자산이 증가 하므로써, 자산상호간의 교채

(交替)가 일어남에 그친다. 그리고 현금을 농협에 예금한다든가, 가축을 매입하는 거래도 같은 경우인데, 이들은 다만 자산내부의 형태상의 변화에 그치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구해지는 자본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손익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자본의 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보통 교환거래 혹은 교체거래(交替去來)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환거래 중에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타형태의 자산으로 변했다는 거래 만이 아니고, 자산과 부채와의 교환 거래도 있다.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든가, 타인으로 부터 현금을 차입한다든가의 거래가 이 경우다. 이 경우에도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감하는 것 만큼 부채도 그 만큼 증감함으로써, 자본의 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손익에도 관계가 없다. 또한 외상매입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된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기 위하여 지급어음이라는 새로운 부채를 만드는 거래이므로 자본의 증감이 있을 수 없고, 손익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는 단지 부채와 부채의 형태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환거래는 자본의 크기에는 영향이 없고 재산 상호간(財産相互間)에 일어나는 재산형태의 교체거래이므로 이를 재산거래(財産去來)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환거래는 이런 재산상호간의 교체거래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기업의 임의 적립금(任意積立金)을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으로 넣는 경우라든가, 준비금이라는 일종의 자본을 자본금 증가에 충당시키는 예이다. 이는 결국 자본금의 형태 변화에 그치고 손익에는 관계없는 것임을 알수 있다.

② 손익거래(損益去來)

앞서 말한 교환거래에 대한 말로서 손익거래(Profit of Loss Transaction)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손익발생(損益發生)의 원인이 되어 자본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이다. 이것은 이익 발생의 거래와 손실발생의 거래가 있다. 예를들면,

노임을 현금지급, 건물의 소실, 이자의 현금 수입, 생산물의 판매 등이다. 여기서 노임 ₩1,000을 지급했다는 거래를 보자. 물론 노임이라는 것은 생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수익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뒤라야 비로소 수익이 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노임을 일단 지불 했을 때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고 어쨌든 ₩1,000이라는 현금 즉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산-부채=자본”이라는 자본등식에 비추어 보아 당연히 그만큼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의 크기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손익거래가 되는데 특히 자본의 감소를 초래 하는 거래이므로 이를 「손실거래」라고 한다. 사료 첨가제 수의약품 등 비교적 단기간 내에 소모되는 것들의 구입 거래는 대개 손실거래이다. 그런데 이런 구입거래도 재정처리의 방법에 따라서는 교환거래도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생산물을 판매한다든가, 대여금의 이자를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거래는, 그 만큼의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현금의 수입은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자본방정식에 의해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이익거래 혹은 수익적거래(收益的去來)라고 하며 손실거래와 이익 거래를 합해서 손익거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손익거래는 소득의 크기에 도 관계되는 거래라는 뜻에서 소득적거래(所得的去來)라고도 한다.

하여튼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별함은 재산법계산과 손익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잘 연구해야 한다.

부기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손익 거래와 교환거래를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는 어떤 물건 자체의 성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료의 구입이라도 계정처리의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교환거래, 때로는 손익거래가 되는데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필요할 때 자가배합을 하기 위하여 성수기에 다량의 임자박을 구입해서 일단 자산계정에 넣어 두었다면 이는 교환거

래가 될 것이요, 며칠동안 급여한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계사로 옮겨 놓았을 경우에는 노임과 같이 바로 소비될 것으로 보고 손실계정에 처리하게 되므로 이는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다.

③ 혼합거래(混合去來)

혼합거래(Mixed transaction)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財産)의 교환과 손익(損益)의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이다. 예를들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거나 지불했을 경우의 거래가 그것으로서, 원금의 반제 부분은 교환거래이나 이자부분의 수불은 손익거래이다. 그리고 육계라고 하는 자산계정에 일정의 원가로 기재되어 있는 부로일러를 매각할 경우, 그 판매가액 중에는 자산으로서의 장부가치 이외에 비육으로 인한 이익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장부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의 거래는 교환거래이고 비육으로 인한 이익부분의 거래는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거래라는 것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의 두가지 거래가 혼합되어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를 말하게 된다. 이런 혼합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혼합계정이라고 하는데, 혼합거래는 반드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로 분해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이 부정확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를 분해 할 필요가 있다.

3) 거래의 이중성(去來의 二重性)이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거래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거래 형태이든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변화하는 요소는 반드시 두개의 요소로 분해되어 동액으로 양쪽의 측면에서 포착되게 된다. 그리고 그 두개의 요소 중 하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대변에 기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하나의 거래가 두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거래의 대립관계(去來의 對立關係)라고 하며, 이 대립관계에 의하여 거래가 두개의 측면으로 동액의 작용을 이루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복식부기에서는 이런 거래의 이중성을 기장처리에 응용하게 되는데(複記式), 이는 기장처리의 기초 수속인 분개(分介)의 기초가 되

므로, 우선 여기서 거래를 두개의 요소로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 몇가지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① 현금으로 부화기 한대를 구입했다고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부화기라고 하는 같은 액수의 자산이 불어나게 되는 두개의 사실로 파악된다. 이 거래는 바로 위에서 본 교환거래이며,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라고 하는 대조적인 두개의 요소로 분해되는 것이다.

② 그 다음 현금으로 차입금을 갚았다고 하자 이 거래는 자산과 부채와의 교환거래이며, 이를 두개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현금을 지불하므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한편,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줄어지는 양면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

③ 그러면 현금으로 노임을 지불한 거래는 어떠한가 이 거래는 앞서 본바의 손익거래로서 특히 손실거래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한편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는 손실 즉,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쉽사리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하나의 측면을 파악 하는데는 잘못하면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앞으로 거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차츰 속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그리고 계란을 현금받고 판매했을 경우의 거래에서는, 우선 현금의 증가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측면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는 생각컨대 양계경영에서 계란의 판매수입이란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이익거래로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두개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지다, 자산·부채·자본의 증감과 비용·수익의 발생으로 포착되어지는, 일련의 거래요소가,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래의 이중성인데, 그러면 이러한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4) 거래요소의 결합관계(去來要素의 結合關係)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다음의 종류

로 나눌 수가 있다.

<차변요소>

- 자산의 증가
- 부채의 감소
- 자본의 감소
- 비용의 발생

<대변요소>

- 자산의 감소
- 부채의 증가
- 자본의 증가
- 수익의 발생

이상과 같이 거래요소가 8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거래의 8요소라고 한다. 거래는 반드시 차변요소와 대변요소가 서로 대립되어서 성립하며, 차변요소끼리의 대립 혹은 대변요소끼리의 대립이 되는 거래는 없다. 그런데 위의 차변요소와 대변요소가 어떻게 해서 증가와 감소로 각각 구분되어졌는가를 초보자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통 초보입장에서 양쪽을 무조건 외울려고 드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무모한 방법이다. 부기는 이해하고 숙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우리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바가 있다. 여기서 이들 구조를 한번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r.	BS	Cr	Dr.	PL	Cr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이익	수익
		이익			

위의 그림에서,

자산 = 부채 + 자본 + 이익 대차 대조표 등식
 비용 + 이익 = 수익 손익 계산서 등식
 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수익 - 비용 = 이익이 되므로, 이를 대차대조표 정식에 대입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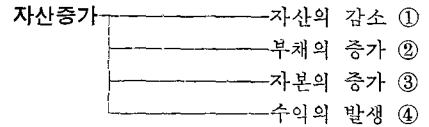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자본} + \text{수익} - \text{비용}$$

$$\text{자산} + \text{비용} = \text{부채} + \text{자본} + \text{수익}$$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왼쪽 항목이 바른편에 음으로서 감소가 되고, 바른쪽 항목이 왼편에 음으로서 증가가 된다는 것을 이해 하게 될 것이다. 위의 거래 8요소를 차변과 대변요소로 각각 분리시킨 것은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함을 분명히 안다면, 무모하게 암기함으로써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들 거래의 결합관계를 예들들어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란기 1대 ₩500,000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란기 ₩500,000 (자산증가)	현금 ₩500,000 (자산감소)
------------------------	-----------------------

② 케이지 ₩3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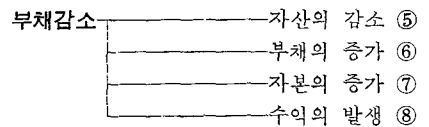
케이지 ₩30,000 (자산증가)	외상매입금 ₩30,000 (부채증가)
-----------------------	-------------------------

③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현금 ₩300,000을 증자하다.

현금 ₩300,000 (자산증가)	자본금 ₩300,000 (자본증가)
-----------------------	------------------------

④ 계란 ₩50,000 판매하여 현금받다.

현금 ₩50,000 (자산증가)	계란수익 ₩50,000 (수익발생)
----------------------	------------------------



⑤ 외상 사료대를 현금으로 ₩3,000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3,000 (부채감소) 현금 ₩3,000 (자산감소)

⑥ 외상약품대 ₩6,000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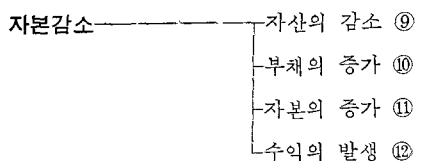
외상매입금 ₩6,000 (부채감소)	약속어음 ₩6,000 (부채증가)
------------------------	-----------------------

⑦ 갑에게서 빌린 차입금 ₩20,000을 갑의 의사에 따라 자본금에 넣다.

차입금 ₩20,000 (부채감소)	자본금 ₩20,000 (자본증가)
-----------------------	-----------------------

⑧ 사료공장에서부터 외상 사료대금 ₩10,000을 공제받다.

외상매입금 ₩10,000 (부채감소)	잡수익 ₩10,000 (수익발생)
-------------------------	-----------------------



⑨ 경영주의 가계비조로 현금 ₩5,000을 인출하다.

자본금 ₩5,000 현금 ₩5,000
(자본감소) (자산감소)

⑩ 갑이라는 출자자가 퇴사할때 그 출자금 ₩10,000을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차입금으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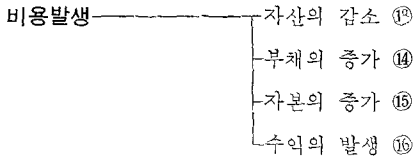
자본금 ₩10,000 차입금 ₩10,000
(자본감소) (부채증가)

⑪ 양계경영의 순이익 ₩20,000을 양계기업의 자본금으로 재 투입하다.

순이익 ₩20,000 자본금 ₩20,000
(자본감소) (자본증가)

⑫ 자본주 J가 퇴사할때 J의 출자금 ₩20,000을 상환면제 받다.

자본금 ₩20,000 잡수익 ₩20,000
(자본감소) (수익발생)



⑬ 노임 ₩1,000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노임 ₩1,000 현금 ₩1,000

(비용발생) (자산감소)

⑭ 뉴-켓을 예방주사약을 외상으로 ₩2,000 어치 구입하다.

약품비 ₩2,000 외상매입 ₩2,000
(비용발생) (부채증가)

⑮ 경영주 가계비에서 ₩8,000을 빼어서 초이 사료를 구입하다.

사료비 ₩8,000 자본금 ₩8,000
(비용발생) (자본증가)

⑯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은 서로 대립되

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수는 없다. 다만 두개 이상의 거래가 서로 상쇄 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대립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채전의 배추를 수확하여, 그것을 가격 결정을 하여 장부에 처리하기 전에 바로 채란제의 녹사료로 이용하였다면 배추 수익이라는 수익과 녹사료비라는 비용이 간접적으로 대립이 되어서, 장부에 처리함에 있어서는 비용과 수익의 발생이 한 거래처럼 처리되는 것이다.

이상의 관계로 보아서 자산·자본·부채·비용·수익의 거래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다른 자산·자본·부채·비용·수익의 변화를 동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도(結合關係圖)를 제시하여, 그들 요소의 대립 관계를 환표에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차 변	대 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와 같이 차변과 대변의 결합관계는 전부 16 종류인 셈인데,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이 직접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없으므로 15종의 거래가 있는 셈이다. 누차 언급하지만, 부기는 실천학문이고 이해하는 과목이므로 암기위주가 되어서도 안되겠고, 이런 도식(圖式)에 너무 얽매어서도 안되겠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와서 이해가 어렵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상식

※ 1972년말 가축수수 (농수산부집계)

한 우 : 1,333,353 두 (6.9% 증가)	개 : 1,493,736 마리
육 우 : 4,868 두 (69.6% ")	토 끼 : 421,220 마리
것 소 : 36,128 두 (20.4% ")	닭 : 24,537,353 수
돼 지 : 1,247,637 두 (6.4% 감소)	오 리 : 224,317 수
말 : 10,813 두	거 위 : 10,324 수
면 양 : 152,227 두 (20.8% 증가)	칠 면 조 : 2,202 수
사 음 : 1,395 두	